

## 발명교육으로 나눔문화 확산

**특** 허청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2011년도 나눔발명교육」을 추진한다.

**특** 나눔발명교육은 학생들이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소외계층·지역 학생들을 위한 발명교육을 시범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나눔발명교육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나눔발명교육은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실, 나눔발명캠프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나눔발명체험교실로 이루어져 있다.

도서·벽지의 학교나 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1일 발명체험교실인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실은 지난 5월 17일 가곡초등학교(충북 단양)를 시작으로 연간 50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 발명의 달, 청소년발명기자단이 떴다

**발** 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초·중·고등학생 1천명이 지난 5월 13일 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2011년도 특허청청소년발명기자로 본격 활동하기 시작했다.

발명기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발명·지식재산 행사를 취재하고 관련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기자활동을 체험하게 된다.

금년도 발명기자단 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1,154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신청하여 평균 1.2: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중·고등학생의 참여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시하고 있고 창의적 경제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발명·지식재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에서는 학생 e-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청소년 발명기자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발명기자단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소년 발명신문을 격월로 발행하는 등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발명기자단이 양적으로 큰 성장이 있었으므로 이제는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자들도 한글과 해시계를 만든 우리 조상의 탐구정신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의 지재권보호 전선 이상 없다

우리나라의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1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1 Special 301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3년 연속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77개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강화 현황을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 감시대상국 29개국을 지정하였으며, 특히 한국 등 10개 교역국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타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중요한 진전으로 언급하였다.

## 지식재산권자, 권리행사 더 적극적으로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의 권리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심판에서 이긴 비율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이 2005~2009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문 3,487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감소한 반면에 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2005년 225건에서 2009년 35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리자가 심판에서 이긴 비율도 2005년 17.6%에서 2009년 21.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상표분야 G4 합류

특허청은 그간 미국특허청, 유럽상표청, 일본특허청을 정식멤버로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던 선진 3개국 상표 회의(Trilateral Trademark Meeting)에 올해부터 한국도 정식멤버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선진 3개국이 지난 5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중간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특허청은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10차 선진 상표청 상표 회의부터 정식멤버로 참석, 상표분야의 글로벌 협력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이로써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상표 출원국인 우리나라가 상표 분야의 세계 4강 체제에 합류하여 상표에 관한 국제적 규범과 표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 뽀로로와 친구들, 전 세계 「발명 선생님」이 된다

어린이의 대통령(일명 뽀통령)이라고 불리는 '뽀로로'가 전 세계 어린이들을 발명과 창의력의 세계로 안내하게 된다.

특허청과 “뽀롱뽀롱 뽀로로”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사인 (주)오콘은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어린이용 국제교육 애니메이션을 공동제작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특허청과 (주)오콘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발명,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발명교육 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어린이용 국제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그간 WIPO, 특허청, (주)오콘 간 협의를 거쳐 2012년 개봉 예정인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레이스 대모험'의 설정과 캐릭터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동 애니메이션은 창의발명, 특허, 상표 등에 관한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한국어와 영어로 1차 제작되어 WIPO를 통해 전 세계로 보급될 예정이고, 향후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등 UN 공용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변리사 정보를 한눈에...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도입

변리사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변리사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이 지난 5월 24일에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리사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면, 변리사회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 사무소 정보, 전문분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변리사는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변리사 정보의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은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변리사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적임의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리사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려웠던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국제상표출원 큰 폭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드리드(Madrid) 국제상표 출원 증가율이 상위 20위 국가 중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2010년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제상표출원 증가율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국 42%, 이탈리아 38.7%, 미국 29.6% 순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특허정보 접근이 수월해진다

특허청은 지난 5월 25일 중국 특허청과 특허데이터 상호교환을 통해 중국문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특허 출원건수 세계 2위인 중국의 특허문헌을 특허청 심사관이 직접 검색할 수 있어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양해각서(MOU)의 주요 내용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공보, 특허영문초록 및 서지사항 등의 데이터를 전자적 형태로 교환, 데이터 용도를 특허청 심사업무용으로만 사용, 데이터 교환은 2012년 7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 지식재산정책의 추진현황과 주요성과를 한눈에

특허청은 2010년도 지식재산정책의 현황과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지식재산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2010 지식재산백서」를 발간하였다.

2010년 특허청은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을 창출·활용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지식재산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세계 최단기간에 특허등록 100만 건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 지식재산백서」는 이러한 지식재산정책의 주요성과와 과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담고 있어 국민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최근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보듯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